

##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의 창설과정과 38선 배치의 함의: 소련군·중국군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선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논문요약

‘조선인민군’ 제1·2·3·4사단은 북한지역에서 창설된 부대였고, 제5·6·12사단은 중국에서 입북해 ‘인민군’에 편입된 부대였다. 민족보위성은 각 사단의 창설과정과 전력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주공격·보조공격부대를 선정했다. 제6사단은 1948년 11월부터 전투경험이 없었고 정규군화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1집단군의 보조공격부대로 배치되었다. 제5사단은 제6사단보다도 전투경험이 부족했고 부대의 통일성도 떨어졌기 때문에 제2부대로 배치되었다. 반면에 제12사단은 1950년 1월까지 전투를 수행해 실전경험이 가장 많은 부대였기 때문에 제2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배치되었다.

제1·2·3사단은 1946년 8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소련군의 군사교리에 따라 정규군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적 공격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대였다. 그리고 제4사단은 노동당원이 다수 투입된 당원사단이었다. 그러므로 제1·3·4사단은 제1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배치되었고, 제2사단은 제1단계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2집단군의 보조공격부대로 배치되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6·25 전쟁 개전 당시에 소련군화·정규군화 정도에 따라 보병사단을 주공격부대와 보조공격부대로 나누어 배치했다.

주제어: 북한군,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중국인민해방군, 소련군사고문단, 경비병사단, 근위사단, 한국전쟁



## I. 머리말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sup>1)</sup>은 1950년 6·25전쟁 개전 당시에 10개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7개 보병사단은 정규사단이었고 제10·13·15사단은 예비사단이었다.<sup>2)</sup> 이 가운데 정규사단은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에 의해 현대적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평가되었으며, 개전 당시에 각각 주공격부대와 보조공격부대로 선정되어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그렇다면 민족보위성이 각 보병사단을 주공격·보조공격부대로 나눈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보병사단의 전력과 작전수행능력 차이였을 것이다.

‘인민군’ 보병사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입북한 보병사단에 집중되었다. 먼저 제5사단의 전신인 중국인민해방군 제164사단과 제12사단의 전신인 제156사단의 입북과정, ‘인민군’ 편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사단들의 전투 경험, 입북의 성격, 전력의 실체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전 당시 보병사단의 주공격·보조공격부대 편성 결과가 일부 밝혀졌다.<sup>3)</sup> 한편 최근에는 1950년 초반 ‘인민군’ 보병사단의 편성에 관한 연구와 6·25전쟁 전후 ‘인민군’ 군사칭호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또한 ‘인민군’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성과도 나왔다.<sup>4)</sup>

- 1)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민족보위성 예하의 ‘조선인민군’과 내무성 예하의 ‘내무군’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각각 고유명칭을 사용했다.
-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이하 라주바예프 보고서)』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37~139.
- 3)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염인호, “해방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북한입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133~190; 염인호, “中國 國共內戰期の 滿洲 朝鮮人部隊에 關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2호, 2004, pp. 197~2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 107~558; 이재훈, “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의 ‘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제45권 3호, 2005, pp. 171~194;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서울: 역사비평사, 2010, pp. 240~278, 433~484; 장성진, “6·25전쟁 이전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성격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제36권 1호, 2013, pp. 155~183.
- 4) 이성춘, “1950년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제11권 6호, 2020, pp. 1049~1063; 이성춘, “조선인민군 군사칭호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제40권 4호, 2024, pp. 95~135; 박은경,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이와 함께 7개 정규 보병사단과 3개 예비 보병사단을 분석한 연구성과도 제출되었다. 선행연구는 3개 민청훈련소가 제10·13·15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제4사단이 창설되는 과정을 분석했으며, 보병사단에 있는 포병부대의 형성과정과 편제를 해명했다. 또한 선행연구는 중국에서 3개 사단이 입북하는 과정과 제1·2·3·4사단의 창설시기와 편제를 분석했고, 제2사단의 편제·간부도 연구했다.<sup>5)</sup> 그러나 선행연구는 정규사단인 제4사단을 예비사단으로 잘못 해석했다.<sup>6)</sup> 또한 제4사단이 1950년 초에 검열단 평가에서 7개 사단 중 최우수사단으로 선정되었다고 분석했다.<sup>7)</sup> 이 서술의 근거자료는 미군의 첩보보고서(KLO Report)인데, 이 보고서에는 ‘인민군’에 존재하지 않는 제7사단이 검열평가에서 7등으로 평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sup>8)</sup>

현재까지 연구경향을 보면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부대에 관한 연구가 축적된 반면에 북한지역에서 창설된 제1·2·3·4사단의 창설세력, 교육·훈련과정, 병력구성, 전투경험 등 각 사단이 갖는 특징과 이것이 사단의 전력에 끼친 영향은 독립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인민군’ 보병사단의 전력과 군사적 특징도 여전히 해명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각 보병사단의 전력과 군사적 특징, 개전 당시 38선 배치와 주공격부대·보조공격부대 선정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보병사단의 창설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보병사단은 창설세력, 창설시기, 편제과정, 교육·훈련과정, 병력구성, 전투경험 등이 다르며, 이 같은 차이는 각 보병사단의 전력과 군사적 특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의 최종 목적은 6·25전쟁 개전 당시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의 38선 배치에 담겨있는 북한 지도부의 판단과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즉 북한 지도부가 각 사단별 전력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각 사단을 38선의 특정 전선에 배치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군사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각 사단

5)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pp. 55~58; 김경수, “인민군 포병의 초기 성장과정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2~47; 김선호, “조선인민군연구,” 경희대 사회과학 석사학위논문, 2016, pp. 224~232, 254~260; 김선호, 『조선인민군』,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453~460, 520~529; 박희성,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군사』제116호, 2020, pp. 6~10.

6)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pp. 57~58.

7) 박희성,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p. 6.

8) MA, RG 23, KLO Report #518;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서울: 나남, 1996, p. 346.

의 창설과정 차이가 전력형성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한 북한 지도부의 전력평가가 사단별 작전임무 배분에 끼친 영향을 구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6·25전쟁 초기 북한 지도부가 구상한 전쟁계획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제1·2·3·4보병사단의 창설과정과 병력구성

‘조선인민군 제1·2·3·4보병사단’은 모두 북한지역에서 창설된 부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4개 사단은 부대의 창설과정, 부대의 성격, 병력의 구성, 훈련 수준이 각각 다르다. 이 중 제1·2·3사단은 1946년부터 시작된 창군과정에서 보안간부훈련소(保安幹部訓練所)를 모체로 출발해서 보병부대로 전환된 부대였다. 북한의 보안간부훈련소는 해방 직후에 각 지역의 경찰조직인 보안대와 경비대의 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46년 8월에 개천·나남·평양에 각각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제2소·제3소가 창설되었다.<sup>9)</sup>

그런데 보안간부훈련소는 설립 당시에 소련군의 경보병사단(輕步兵師團, Light division)<sup>10)</sup>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Terenty F. Shtykov)는 1946년 9월 7일자 일기에 북한 군대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경보병사단”의 정원을 9,957명이라고 기록해 놓았다.<sup>11)</sup> 북한 당국은 보안간부훈련소를 내부적으로 보병사단과 보병여단으로 명명했다.<sup>12)</sup> 3개 보안간부훈련소의 정식 명칭을 보면 제1소는 “국경수비보병사단”, 제2소는 “제2경보병사단”, 제3소는 “보병독립여단”이었다. 1946년 12월 30일 당시 편제병력을 보면 국경수비보병사단이 9,957명, 제2경보병사단이 10,107명으로 평균 10,000

9)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1945.8~1950.6)』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69~370.

10) ‘인민군’의 보병사단은 창설과정에서 그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 각 사단의 명칭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1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1소→국경수비보병사단→제1경보병사단→제1사단), 제2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제2경보병사단→제2사단), 제3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3소→보병독립여단→제3사단), 제4사단(제4보병여단→제4사단), 제5사단(중국군 제164사단→제5사단), 제6사단(중국군 제166사단→제6사단), 제12사단(중국군 제156사단→제12사단).

11) 쉬띠코프, “1946년 9월 7일자 일기.”『쉬띠코프 비망록』, 서울: 중앙일보사 내부번역본, 1995.

12)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권, 서울: 고려원, 1990, pp. 74, 92~93.

명이다. 이 병력 규모는 통상 10,000명으로 편성되는 소련군 보병사단의 편제병력과 거의 비슷했다.<sup>13)</sup>

국경수비보병사단과 제2경보병사단은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가 설립되자 ‘인민집단군 제1경보병사단과 제2경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고,<sup>14)</sup>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정식으로 창설되자 ‘조선인민군 제1보병사단과 제2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다.<sup>15)</sup> 따라서 제1사단과 제2사단은 1946년 8월에 설립되어 1년 6개월 동안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정규사단으로 완성되었다.

제1사단·제2사단의 병력은 다른 사단의 병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단의 전신인 보안간부훈련소는 각 분소마다 주둔지역의 청년들을 입소시켜 신병을 충원했다.<sup>16)</sup> 보안간부훈련소의 장기적 목적은 정규군대의 기간병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sup>17)</sup>

그런데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은 북한 청년들이 아니었다. 제1소와 제2소는 1946년 7월에 강건(姜健)이 중국에서 데리고 입북한 조선인 병력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sup>18)</sup> 또한 1946년 봄에 동북지역의 훈춘보안단(琿春保安團) 병력 2,000여 명과 1946년 6월에 조양천교도대(朝陽川教導隊) 졸업생 500명이 입북해서 보안간부훈련소에 배치되었다.<sup>19)</sup> 따라서 제1사단과 제2사단은 1946년 6~7월에 중국에서 입북한 4,000여 명의 조선인병력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부대의 간부들을 정책적으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시켜 소련식 군사교리를 배우도록 조치했다. 이들은 평양학원에서 번역한 소련군사교범을 토대로 제식·체육·창벽·전술학·지형학 등을

13) “1946년 12월 22~30일 제25군사령관 및 참모부가 수행한 조선군대 경보병사단 검열 결과 총결보고”(1946.12.31), IAMO, ㉠. 379, ㉠. 166654, ㉠. 1, ㉠. 32; 제25군 참모부 보로브 예프 소좌, “조선군대 제1사단 검열에 대한 의견”(1946.12.26), IAMO, ㉠. 379, ㉠. 166654, ㉠. 1, ㉠. 42; 조학범, 『조선인민군대 이력서』, 평양: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1948.9.25,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5.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 682; 佐佐木春隆 著, 姜和求 譯, 『韓國戰秘史』中卷, 서울: 兵學社, 1977, pp. 30~31.

15) 장준의,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pp. 61~62, 87~88.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p. 680.

17) 김일성,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1947.1.15). 『김일성전집』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1.

18)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역사비평』제2호, 1988, p. 365.

19)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39~141.

교육받았으며, 소련공산당사 등 완전히 소련식 정치사상을 교육받았다. 입북한 조선인 간부들은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재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각 부대로 재배치되었다.<sup>20)</sup> 그러므로 제1·2사단에 편입된 조선인 간부와 병사들은 1946년 8월부터 소련식 군사교리를 통해 재교육되었다.

제3사단은 제1·2사단과 동일하게 보안간부훈련소를 모체로 편성되었지만 2개 사단과 병력구성이 다르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6년 8월에 보안간부훈련소를 설립할 당시부터 철도경비대를 보안간부훈련소에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sup>21)</sup> 이 계획에 따라 1946년 9월까지 철도경비대 병력의 20%가 보안간부훈련소로 이관되었다.<sup>22)</sup> 그리고 철도경비대는 1946년 11월 10일에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로 흡수되었고, 철도경비대의 중대는 3개 대대로 개편되어 제3소의 예하부대로 전환되었다. 이 부대가 ‘보병독립여단’이었다.<sup>23)</sup>

보병독립여단은 원산에 주둔하면서 정규군으로 육성되었으며, 그 결과 1948년 9월 9일에 ‘조선인민군 제3보병사단’으로 증편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24)</sup> 하지만 보병독립여단이 제3사단으로 개편된 시점은 9월 9일이 아니라 10월 16일이다.<sup>25)</sup> 그러므로 제3사단은 만주의 조선인병력을 주축으로 편성된 제1·2사단과 달리, 철도경비대 병력을 바탕으로 북한 청년들을 모병해서 편성되었다.

제1·2·3사단은 병력구성이 다르지만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대들은 1946년 8월에 설립된 다음부터 모두 소련군사고문단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정규군으로 육성되었다. 1946년 8월까지 장군 2명 등 총 343명의 소련 군관이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예하 연대·대대·중대에 군사고문으로 배치되었다.<sup>26)</sup> 군사고문들은 이론교육과 야전훈련 등 군사훈련을 담

20) 정현수 외, 『중국 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pp. 208~209.

21) HQ, USAFIK, ISM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2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210.

22) HQ, USAFIK, ISMK, No.39(1947.6.15.~6.30),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2권 p. 212.

23)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pp. 55~57.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pp. 688~689.

25) 보병독립여단 76mm포병대대 체육교원 박순희는 1948년 10월 16일에 제3사단 편성과 동시에 제3사단 제9연대 체육교원으로 임명되었다. 박순희, 『민족보위성 리력서』, 평양: 제17포병연대, 1950.1.18,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2.

26)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권, p. 569;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국방부 군사편

당했으며 직접 군사훈련에도 참가했다.<sup>27)</sup>

소련군사고문이 배치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2개 경비병사단과 보병 독립여단의 병사들이 본격적으로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습득했다는 점이다. 보안 간부훈련대대부는 기존에 일본군의 군사교범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초훈련교범군 사용어구령법·병기명칭을 소련군 방식으로 새로 제정했다. 그리고 부대의 내무근 무표·훈련계획표·위병근무표와 각종 공병학·통계표도 소련군의 교재·교범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했다.<sup>28)</sup>

이와 함께 2개 경비병사단과 보병독립여단은 창설 직후부터 소련제 무기를 넘겨받아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1946년 12월 당시 보안무력의 무기 중 50%는 일본제였고 50%는 소련제였다. 소련군사령부는 일본제 무기를 모두 슈파긴(Shpagin) 기관단총, 데그차레프(Degtyarev) 경기관총, 막심(Maxim) 경기관총 등 소련제 무기로 교체해주었고 소련제 곡사포와 76mm포도 지급했다.<sup>29)</sup> 결국 제1사단제2사단제3사단은 1946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소련군사고문의 지도 아래 소련군 교재·교범·무기로 훈련받으면서 정규군으로 완성되었다.

제4보병사단은 앞에서 살펴본 제1·2·3사단과 다른 방식으로 창설되었다. 제4보병사단의 전신은 제4보병여단인데, 이 부대는 1948년 10월 15일에 평남 대동군에서 처음 창설되었다.<sup>30)</sup> 제4여단이 사단으로 증편된 시기는 1949년 말로 알려져 있지만<sup>31)</sup> 실제로는 1950년 1월 7일까지 '여단'이었고 1월 8~12일에 '제4보병사단(제485군부대)'으로 증편되었다.<sup>32)</sup> 그 후 제4사단은 1950년 4월에 제2사단의 1개 연대(제5연대)와 중국에서 입북한 1개 조선인 연대를 인수받아 완편사단이 되었다.<sup>33)</sup> 따라서 제4사단은 1950년 1월 창설 당시에 제16·17연대

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권, pp. 368, 370, 406.

27)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권, pp. 99~101.

28) 주영복, 위의 책, pp. 84~86.

29) HQ, USAFIK, /SNK, No.30(1947.2.1.~15),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1권, p. 498.

30)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p. 103.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p. 689.

32) '인민군'의 1950년 1월 7일자 비밀문서에 부대명칭이 "4여 포사령부"로 기록되어 있고 1950년 1월 12일자 비밀문서에 "제485군부대"라는 제4보병사단의 단대호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제531군부대 제1부부대장 김봉률, "무전통신문건 실시에 관하여"(1950.1.7);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兵器年未檢閱 總結에 關하여"(1950.1.12). 포병참모부, 『보위성 접수문건철』, 평양: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 1950.6.13.

를 보유하고 1개 연대를 편제만 해놓은 상태에서 1950년 4월에 중국의 조선인 연대를 제18연대로 재편해서 완편되었다.

제4사단에 편입된 조선인 연대는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제47군의 연대 급부대인 조선인독립단(朝鮮人獨立團)이다. 이 부대는 1950년 2월 초에 제47군의 각 사단에 있던 조선인들을 집결시켜 새로 만든 부대로 3월 말에 하남성 정주(鄭州)에서 3,000명으로 편성되었다. 조선인독립단은 1950년 4월 초에 열차에 탑승해 황해도 송림에 도착해서 '조선인민군 제18보병연대'로 개편되었다.<sup>34)</sup>

1948년 10월 중순에 신편된 제3사단과 제4여단은 모두 소련군 근위보병사단을 모델로 창설되었다. 1942년에 소련군에 도입된 근위보병사단은 10,670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사단의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보병사단에 비해 자동화기기를 32% 더 배치했고 포병연대에도 1개 포대를 추가했다. 또한 소련군은 1944년에 모든 근위보병사단의 통신중대를 통신대대로, 2개 중대로 편성된 공병대대를 3개 중대로 확편했다.<sup>35)</sup> 제4여단은 직속부대의 단위가 사단보다 낮지만 직속부대의 병종은 근위보병사단과 유사하다. 민족보위성은 소련군이 독소전쟁을 치루면서 현대적인 전격전에 적합하도록 보병부대 화력을 강화한 근위보병사단을 모델로 제3사단과 제4여단을 창설한 것이다.

〈표 1〉 제1·2·3·4사단의 창설과 변화

| 부대명  | 부대 모체(창설시기)                        | 인민집단군총사령부 시기(1947.5.17) | 인민군총사령부 시기(1948.2.8) | 민족보위성 시기(1948.9.9)                    |
|------|------------------------------------|-------------------------|----------------------|---------------------------------------|
| 제1사단 |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br>(국경수비보병사단 1946.8)   | 제1경보병사단<br>(1947.5.17)  | 제1보병사단<br>(1948.2.8) | 제1보병사단<br>(1948.9.9)                  |
| 제2사단 |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br>(제2경보병사단 1946.8)    | 제2경보병사단                 | 제2보병사단<br>(1948.2.8) | 제2보병사단<br>(1948.9.9)                  |
| 제3사단 |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br>(보병독립여단 1946.11.10) | 보병독립여단                  | 보병독립여단<br>(1948.2.8) | 제3보병사단<br>(1948.10.16)                |
| 제4사단 | -                                  | -                       | -                    | 제4보병여단(48.10.15)<br>제4보병사단(50.1.8~12) |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279.

34)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53~154.

35)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 211, 309, 331.

### III. 제5·6·12보병사단의 창설과정과 병력구성

‘조선인민군 제5·6·12보병사단’은 앞에서 살펴본 제1·2·3·4사단과 창설과정이 다르다. 이 사단은 모두 중국인민해방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1949~1950년에 입북해서 ‘인민군’에 편입된 부대이다. ‘인민군’ 제5사단의 전신은 중국인민해방군 제164사단이었고, 제6사단의 전신은 제166사단이었으며, 제12사단의 전신은 제156사단이었다.

북한정부는 1949년 4월 30일 민족보위성 부상 김일(金一)을 중국에 파견해서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를 넘겨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sup>36)</sup> 조선인 부대인 제164사단과 제166사단은 1949년 7월에 입북했고 제156사단은 1950년 4월에 입북했다. 그런데 3개 조선인사단은 전력이 각각 달랐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각 사단의 모체와 창설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제5사단의 모체는 조선의용군 제3·7지대와 목단강군구 제3연대이며, 이 부대들은 1946년부터 시작된 제2차 국공내전 과정에서 길남군구 독립11사단과 중국인민해방군 제164사단으로 개편되었다. 길남군구 독립11사단의 3개 연대 중에 제1연대의 모체는 조선의용군 제3지대이다. 1945년 11월에 심양에서 조직된 제3지대는 1948년 3월에 독립11사단 제1연대로 최종 개편되었다.<sup>37)</sup> 독립11사단 제2연대의 모체는 조선의용군 제7지대이다. 1945년 11월 29일 화전현에서 창설된 제7지대는 1946년 3월 말에 화전현보안단으로 개편되었다가<sup>38)</sup> 1948년에 독립11사단에 최종 편입되었다.<sup>39)</sup> 독립11사단 제3연대의 모체는 목단강군구 제3연대이다. 1947년 3월에 창설된<sup>40)</sup> 제3연대는 1948년 3월에 독립11사단 제3단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독립11사단은 1948년 3월에 비로소 3개 조선인 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독립11사단은 1948년 5월부터 장춘포위전에 투입되어 10월에 장춘에 입성했다. 그 후신인 제164사단은 1948년 11월부터 장춘위수업무를 수행했는데,

36)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에디터, 2003, pp. 117~118, 120.

37)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92~97.

38)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1992, pp. 94~99.

39)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07~108.

40) 염인호, “해방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북한입북.” p. 139.

1949년 5월경에 상부로부터 ‘인민군’에 편입된다는 내부지시가 전달되었다. 제164사단은 대대장급의 50%와 연대장 이상급의 70%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간부를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조선인 간부를 배치했다. 또한 제164사단은 장비가 빈약하고 병력도 8,0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의 편성에 근거해서 새로 포병부대를 조직하고 병력을 보충했다.<sup>41)</sup>

제164사단은 하얼빈 점령작전과 장춘포위전에 참전했지만, 사단 편성 이후 전투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국민당군이 스스로 투항함에 따라 실전경험이 부족했다. 또한 제164사단의 3개 연대는 각각 모체가 다르며 1948년 3월에 처음으로 같은 사단에 소속되었다. 그 결과 제164사단은 부대의 통일성과 전력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제164사단은 1949년 4월까지 각종 기본동작이나 구령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부대원들은 화기의 원리를 몰랐고 전술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제164사단은 1949년 5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장춘에서 특별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6월에 특종화기 훈련을 포함해 돌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예비부대는 전술교육을 통해 중무기 화력배치와 합동작전 운용능력을 향상시켰다.<sup>42)</sup>

이와 함께 ‘인민군’ 장교 10여 명이 1949년 5월 말에 장춘에 파견되어 제164사단 병사들을 직접 훈련시켰다. 이들은 제164사단의 중하위 간부를 대상으로 정규화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제164사단은 6월 25일에 분대장 등 하위간부를 훈련시키기 위해 교도대대를 신설했는데 이 훈련을 담당한 것은 “북조선 군관학교에서 파견한 7명”의 교관이었다. 이 교관들은 먼저 군사기술을 교육했고 이후 내무제식교련과 전술을 교육했다.<sup>43)</sup>

둘째, 제6사단의 모체는 조선의용군 제1지대이다. 1945년 11월 중순에 심양에서 조직된 제1지대는 1946년 2월에 요녕군구 리흥광지대로 개편되었고 1946년 12월에 다시 요녕군구 독립4사단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47년 초부터 동북전쟁에 투입되었고 1948년 10월에 요심전역(遼瀋戰役)에 참전했다. 이후 11월에 심양이 점령되자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으로 개편되었고 이때부터 심양시 위수임무를 수행했다.<sup>44)</sup> 제166사단은 앞의 제164사단과 달리 독립4사

41)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46~147.

42)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pp. 475~478.

43) 염인호, 위의 책, pp. 478~479.

단으로 개편된 후 1년 11개월 동안 사단 단위로 전투를 수행했다.

제166사단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별다른 전투 없이 심양위수임무를 수행했다. 사단사령부는 1949년 5월에 입북 결정을 전달받았고 즉시 사단의 중국인 부대원을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인민군’의 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편제인원을 초과하는 연대급 간부를 장춘의 제164사단으로 이동시키고 일부 간부를 지방간부로 전직시켰다. 부대재편 결과 사단병력이 10,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북지역에서 병력을 보충했다.<sup>45)</sup>

이 3개 사단은 모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입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족보위성 부상 김일은 1949년 5월 1~2일에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나서 조선인부대 인계요청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3개 조선인사단 중 2개 사단은 심양과 장춘에 주둔하고 있으며, 1개 사단은 공격작전에 참전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동북지역의 2개 사단은 완전무장한 상태로 언제든지 북한정부에 이전할 수 있으며, 나머지 1개 사단은 남부지역에서 국민당군대와 전투가 종료되면 인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sup>46)</sup> 마오쩌둥이 심양과 장춘에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대는 제166사단과 제164사단이며, 공격작전에 참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대는 제156사단이다.

제166사단과 제164사단은 중국 측이 즉시 이전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1949년 5월부터 인수인계작업을 시작했다.<sup>47)</sup> 심양위수임무 중이던 제166사단은 1949년 7월 20일에 심양을 출발했다. 입북한 제166사단의 총병력은 10,450명이었다.<sup>48)</sup> 제166사단은 신의주에 도착한 직후에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고, 사단 예하의 제496·497·498단은 각각 제13·14·15연대로 개편되었다. 이 중에서 제15연대의 전신인 제498단은 사단의 주력부대로서 전력이 가장 강한 부대였다. 제6사단은 1949년 10월에 황해도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 모든 무기장비를 소련제로 교체하고 소련군의 교범대로 재교육을 받았다.<sup>49)</sup> 장춘위수임무 중이던 제164사단은 1949년 7월 23일에 장춘을 출발했다. 총병력은

44)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81~87.

45) 김중생, 위의 책, pp. 143~144, 146.

46) “슈티코프→스탈린”(1949.5.15). 토르크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pp. 117~118, 120.

47) “슈티코프→스탈린”(1949.6.22). 토르크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p. 58.

48)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pp. 479~480.

49)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44~146, 174~175, 199.

10,821명이었다.<sup>50)</sup> 제164사는 남양으로 입북한 후 나남으로 이동해 ‘조선인민군 제5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고, 사단 예하의 제490·491·492단은 각각 제10·11·12연대로 개편되었다.<sup>51)</sup>

1949년 7월에 입북한 2개 사단은 모두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병력은 10,450~10,821명이었다. 이 2개 사단은 편제와 병력규모가 소련군 근위보병사단과 ‘인민군’ 보병사단의 편제·병력규모와 유사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 개편이나 병력의 증원 없이 즉시 ‘인민군’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 조선인사단의 병사들은 입북 직후에 ‘인민군’의 「내무규정」과 「규율규정」을 새로 학습하면서 ‘인민군’ 병사로 재교육되었다.<sup>52)</sup>

제12사단도 제56사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전력과 병력구성은 앞의 사단과 다르다. 제12사단의 모체는 조선의 용군 제5지대이다. 1945년 11월에 심양에서 창설된<sup>53)</sup> 제5지대는 1946년에 동북군구 독립6사단에 편입되었다. 이후 1946년 12월부터 1948년 9월까지 임강(臨江)보위전, 장춘포위전 등에 참전했고 1948년 9~11월에 요심전역에 참전했다.<sup>54)</sup>

독립6사단은 1948년 11월에 제4야전군 제12병단 제43군 제156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제156사단은 11월 24일에 관내(關內)로 진군을 시작해서 1948년 12월부터 1949년 5월까지 제4야전군의 선봉사단으로 평진전역(平津戰役), 양자강 도하작전 등 국공내전의 주요전투에 참전했다. 그 결과 제156사단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직속부대와 3개 연대를 합해서 총 106회의 부대표창을 받았으며 3,495명의 전투영웅을 배출했다.<sup>55)</sup>

북한 지도부는 1950년 1월 중순에 김광협(金光俠)을 중국으로 파견해서 중국인민해방군에 남아있는 조선인 병사들을 모두 입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의 명령에 따라 제156사단 등 제4야전군에 있던 조선인

50)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p. 479.

51)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46~147; 림용기, “제1차 장춘해방전투와 박락권련대장.”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p. 173.

52)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편, 『돌아보는 력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2, pp. 250~251.

53)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99~100.

54) 156사실전록 편집위원회, 『156사 실전록』, 연변: 연변교육출판사, 2002, pp. 7~36.

55) 156사실전록 편집위원회, 위의 책, pp. 36~53.

부대들은 1950년 2월 22일 하남성 정주에 집결해서 독립15사단으로 편성되었다. 12,000명으로 편성된 독립15사단은 완편사단이었다.<sup>56)</sup> 독립15사단은 4월 15일경 정주역에서 직행열차를 타고 입북했고<sup>57)</sup> 4월 25일 원산에서 ‘조선인민군 제12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다. 독립15사단 제1·2·3단은 각각 제30·31·32연대로 개편되었고, 포병단은 제12포병연대로 개편되었다.<sup>58)</sup>

중국인민해방군 제156사단은 1946년 12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동북전쟁에 참전했으며, 1948년 12월부터 1950년 1월까지 평진전역, 양자강 도하작전 등에 참전했다. 특히 이 부대는 평진전역부터 제4야전군의 선견병단에 소속되어 1년 2개월 동안 미군 무기로 무장한 국민당의 정규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 제156사단은 중국에서 온 부대 중에서 실전경험과 전력이 가장 뛰어났다. 또한 제164사단·제166사단이 입북 직전에 공통적으로 약 3,000명의 신병을 충원했음에 비해, 제156사단은 입북 직전에 신병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국내전에 참전한 노전사들로 구성되었다.

〈표 2〉 중국 조선인부대의 창설과정과 ‘인민군’ 편입

| 부대명           | 부대 모체                    | 동북전쟁시기                | 중국인민해방군시기                    | 인민군 편입시기                                |
|---------------|--------------------------|-----------------------|------------------------------|-----------------------------------------|
| 제5사단          | 조선의용군 제3지대<br>목단강군구 제3연대 | 길남군구<br>독립1사(1948.3)  | 제4야전군<br>제164사단(1948.11)     | 제490·491·492단→<br>제1011·12연대(1949.7.26) |
| 제6사단          | 조선의용군 제1지대               | 요녕군구<br>독립4사(1946.12) | 제4야전군<br>제166사단(1948.11)     | 제496·497·498단→<br>제1314·15연대(1949.7.24) |
| 제12사단         | 조선의용군 제5지대               | 동북군구<br>독립6사(1946)    | 제4야전군<br>제156사단(1948.11)     | 제1·2·3단→<br>제3031·32연대(1950.4.25)       |
| 제4사단<br>제18연대 | 중국인민해방군<br>조선인독립단        | 미편성                   | 제4야전군 제47군<br>조선인독립단(1950.2) | 조선인독립단→<br>제4사단 제18연대(1950.4)           |

56)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50~152; 156사실전록 편집위원회, 『156사실전록』, pp. 103~104, 345.

57) 길재준·리상진,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pp. 303~304.

58) 장준의, 『북한인민군대사』, p. 458; HQ, FECOM,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Tokyo: HQ, FECOM, 1952.7.31, p. 24.

#### IV.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의 전력 수준과 38선 배치

1950년 4월까지 완편된 보병사단은 약 1년 6개월 동안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훈련에 돌입했으며, 모두 1950년 6월 25일 당시 공격의 주력군으로 배치되었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가 보병사단의 훈련수준과 전력을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판단 근거는 무엇보다 1949~1950년에 이루어진 북한 지도부와 소련군사고문단의 평가결과였다. 북한주재 소련대사 겸 2대 소련군사고문단장 슈티코프는 1949년 6월 22일에 모스크바에 ‘인민군’의 현황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인민군 4개 부대와 2개 경비여단 정도가 현재 대략적인 궤도에 올라 전쟁을 수행할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결론내렸다.<sup>59)</sup>

또한 민족보위성은 1949년 9월에 ‘인민군’ 전체부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군 대기동 연습”을 실시했다. 이 대기동 연습의 결과는 각 부대별로 평가되었는데 전체부대 중에서 제105탱크여단이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sup>60)</sup> 또한 슈티코프는 1949년 9월 15일에 ‘인민군’의 전체적인 전투능력을 평가해서 모스크바에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해주 지역의 전투에 참가했던 제1보병사단 예하 1개 대대의 활동은 군의 전투능력이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sup>61)</sup>

슈티코프가 1949년 6월에 전쟁수행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부대는 ‘조선인민군’ 제1·2·3·4사단과 ‘내무군(內務軍)’의 2개 38경비여단이었다. 이 부대는 소련제 무기가 추가로 지원되면 바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민족보위성과 슈티코프가 1949년 9월에 최우수부대와 탁월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 부대는 제105탱크여단과 제1사단이었다. 1949년 9월에는 이미 중국에서 조선인사단이 입북해 제5사단과 제6사단으로 전환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2개 사단의 전력은 북한과 소련 양측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59) “슈티코프→모스크바”(1949.6.22).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p. 59.

60)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pp. 141~142.

61) “소련대사→소련 내각회의 의장”(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 44.

조선인사단에 대한 이 같은 전력 평가는 이미 1949년 5월부터 제기된 것이다. 마오쩌둥은 1949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한 김일에게 조선인사단의 인도를 약속하면서 이 조선인사단에 대해 ‘정규군이 아니며 군사적 견지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2개 조선인 사단 중에 ‘1개 사단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음’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제166사단(이후 제6사단)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제164사단(이후 제5사단)은 전투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이었다.<sup>62)</sup>

또한 슈티코프는 1949년 9월 15일 소련 내각회의에 보낸 보고에서 입북한 조선인부대의 군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사단의 인원은 국민당군에 반대한 전투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지만, 전술과 작전계획 측면에서는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습니다.”<sup>63)</sup> 슈티코프가 언급한 ‘전술과 작전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반영된 소련군의 최신 군사교리와 제병합동의 작전계획을 통해 수행된 전쟁 경험을 뜻한다. 소련군사고문단은 조선인사단이 소련군의 군사교리와 현대전 수행능력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북한 지도부도 중국에서 입북한 조선인사단에 현대전 수행능력을 갖추 것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은 1949년 7월 29일에 제6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인부대가 실전경험이 풍부하지만,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과 전투를 치른 경험이 없고 지휘관들도 정규부대의 전투를 지휘한 경험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전투훈련에 적극 참가해서 신속히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습득하고, 현대전에 맞는 훈련강령에 따라 현대전의 전투행동방법을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민군’의 군사규정과 군사교범에 입각해 정규군 생활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sup>64)</sup>

김일성은 1950년 4월 20일에 입북한 조선인독립단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5월 12일에 조선인독립단 병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독립단이 제4사단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인민군대의 면모가 없다고 지적하고, 지휘

62) 염인호, “해방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북한입북.” p. 189.

63) “소련대사→소련 내각회의 의장”(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p. 44.

64) 김일성,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 군관회의에서 한 연설”(1949.7.29). 『김일성전집』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436~449.

관들에게 인민군대 군사규율을 철저히 인식하고 군사규정과 군사교범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은 신속히 한반도의 지형조건과 현대전에 맞는 전법을 습득하고, 모든 지휘관들은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sup>65)</sup>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 지도부는 조선인사단이 소련군의 군사교리무기장비와 '인민군'의 군사규율·군사규정·군사교범을 배우지 않았으며, 정규군을 상대하는 현대전의 전투방법과 전투수행능력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1949년 11월 중순에 제6사단에 대한 "동계훈련 검열"을 실시했다. 검열단은 전투훈련국장 김웅(金雄)을 단장으로 해서 민족보위성 간부 1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열은 3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검열내용은 서류검열, 내무검열, 전투훈련(사격·소대공격·총검술)검열, 대열검열, 행군검열이었다.<sup>66)</sup> 검열과정과 검열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1949년 11월 중순 제6사단 동계훈련검열의 과정과 결과<sup>67)</sup>

| 일정        | 검열내용                  | 검열방법                                                                         | 검열결과                                                      | 검열관         |
|-----------|-----------------------|------------------------------------------------------------------------------|-----------------------------------------------------------|-------------|
| 검열<br>1일차 | 내무검열과<br>일반전투훈련<br>검열 | 각 병과부대의 내무생활을<br>검열하고,<br>사격소대공격·백병전(총검술)을<br>실시                             | 기술종목은 다른 사단과<br>유사함.<br>사격소대공격·백병전(총검술)<br>등은 결함 없이 좋은 성적 | 병과담당<br>검열관 |
| 검열<br>2일차 | 대열검열                  | 모든 부대원을 완전무장상태로<br>정렬시킨 후, 정치사상학습<br>정도, 군사무기 지식,<br>전투경험·내무생활·급여상태<br>등을 질문 | 기록 없음                                                     | 병과담당<br>검열관 |
| 검열<br>3일차 | 행군검열                  | 제13연대·14연대와 각<br>독립부대에 비상소집을 하달해<br>행군훈련을 실시                                 | 행군질서와 규율대책 등이<br>질서정연했고 1명의<br>낙오자도 없었음                   | 병과담당<br>검열관 |

65) 김일성,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보병연대 지휘관 및 병사들과 한 담화"(1950.5.12). 『김일성전집』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64~367.

66)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권, pp. 167~168.

67) 주영복, 위의 책, pp. 166~168.

제6사단의 동계훈련검열 결과는 검열 4일차에 검열단과 제6사단 간부들이 모여서 개최한 “검열총화보고대회”에서 보고되었다. 김웅은 3일간의 검열결과에 대해 ‘인민군은 창립 이래 주야로 맹훈련을 거듭하여 훌륭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정치의식과 사상을 고도로 고취시켰다’라고 평가하면서 ‘금번 제6사단 훈련검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총평했다.<sup>68)</sup> 제6사단과 같은 시기에 입북한 제5사단에 대한 검열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제6사단은 1949년 7월에 입북한 이후 4개월 동안 전투훈련을 받으면서 ‘인민군’의 교라·규율 전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민족보위성은 1949년 12월 중순에 “보병사단 공격연습”을 실시했다. 공격연습은 제6사단부터 실시되었고, 민족보위성은 김웅 단장 등 50여 명의 연습강평단을 파견했다. 또한 소련군사고문과 제5보병사단 지휘관들도 훈련을 참관했다. 강평단장 김웅은 제6사단의 훈련이 우수했다고 평가했으나 ‘작전계획·작전지도, 병종간의 합동작전에 몇 가지 결함’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나남의 제5사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병사단 공격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제5사단의 훈련은 ‘전시(戰時)행군연습’을 제외하고 모두 이론훈련만 실시되었다. 또한 함흥의 제2사단, 원산의 제12사단, 남포 주둔부대(제4사단)와 숙천 주둔부대(제2민청훈련소)에서도 검열이 실시되었다.<sup>69)</sup>

보병사단 공격전투훈련은 1949년 12월 중순에 제2·4·5·6사단과 민청훈련소에서 실시된 것이 확인되므로 다른 사단에서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을 것이다. 이 공격전투훈련은 전면전을 상정한 상태에서 각 사단별로 모의 공격전을 진행해봄으로써 전력과 전투수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입북한 보병사단의 공격전투훈련 결과에 대해 전투훈련국장 김웅과 소련군사고문단의 평가는 서로 달랐다. 김웅은 이 훈련의 성과에 대해 ‘제5·6사단은 실전경험이 많은 부대이기 때문에 기성 인민군보다 훈련성적이 우수하다’라고 강평했다. 반면에 소련군사고문단은 ‘비록 실전경험은 많을지 모르나 기술적인 지식은 미약하다’라고 평가했다.<sup>70)</sup> 양측은 중국에서 편입된 보병사

68) 주영복, 위의 책, p. 168.

69) 주영복, 위의 책, pp. 171~175.

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p. 708.

단이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전술에 대한 이해와 전술 수행능력의 평가에서 의견이 갈렸다.

김웅은 제6사단의 모체인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 출신이자 민족보위성 전투 훈련국장이었기 때문에 중국군시기의 전투경험과 1949년 12월 공격연습훈련의 결과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입북한 2개 사단의 전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사고문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 경험과 지휘관 경험이 풍부한 장군과 군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sup>71)</sup> 2개 사단이 소련군처럼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전술에 대한 지식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김일성도 조선인부대의 실전경험은 높이 평가했지만, 이들이 소련군의 군사교리·무기·장비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전에 필요한 정규군의 면모와 전투수행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11~12월에 진행한 검열과 훈련의 결과에 따라 각 보병사단의 전력을 다르게 평가했지만 각 보병사단의 편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인민군’은 1950년 4월에 제12사단이 창설되면서 총 7개 보병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사단의 예하연대는 1950년까지 일련번호 순서로 편제되었다. 그런데 민족보위성은 195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보병사단의 편제를 대폭 개편했다.

〈표 4〉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의 편제 변화(1950년 4~6월)<sup>72)</sup>

| 부대   | 사단장       | 창설 시기  | 부대 전신       | 예하부대 (1950.4) | 예하부대 (1950.6.25)           | 임무         |
|------|-----------|--------|-------------|---------------|----------------------------|------------|
| 제1사단 | 김웅 (金雄)   | 1946.8 |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 제1·2·3연대      | 제1부대: 2·3연대<br>제2부대: 14연대  | 제1집단군 주공격  |
| 제2사단 | 리청송 (李靑松) | 1946.8 |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 제4·5·6연대      | 제1부대: 4·6연대<br>제2부대: 17연대  | 제2집단군 보조공격 |
| 제3사단 | 김광협 (金光俠) | 1948.9 |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 | 제7·8·9연대      | 제1부대: 7·9연대<br>제2부대: 8연대   | 제1집단군 주공격  |
| 제4사단 | 리권무 (李權武) | 1950.1 | 인민군 제4여단    | 제16·17·18연대   | 제1부대: 16·18연대<br>제2부대: 5연대 | 제1집단군 주공격  |

71)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p. 368.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권, pp. 269~2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2권, pp. 16, 19, 26~29, 35~39.

| 부대    | 사단장       | 창설 시기  | 부대 전신      | 예하부대 (1950.4) | 예하부대 (1950.6.25)                  | 임무         |
|-------|-----------|--------|------------|---------------|-----------------------------------|------------|
| 제5사단  | 김창덕 (金昌德) | 1949.7 | 중국군 제164사단 | 제10·11·12연대   | 제1부대: 10·11·12연대                  | 제2집단군 제2제대 |
| 제6사단  | 방호산 (方虎山) | 1949.7 | 중국군 제166사단 | 제13·14·15연대   | 제1부대: 1·13·15연대<br>제2부대: 13연대 3대대 | 제1집단군 보조공격 |
| 제12사단 | 전우 (全宇)   | 1950.4 | 중국군 제156사단 | 제30·31·32연대   | 제1부대: 30·31·32연대                  | 제2집단군 주공격  |

먼저 제1사단 제1연대가 제6사단으로 이동했고, 제6사단 제14연대가 제1사단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제2사단 제5연대가 제4사단으로 이동했고, 제4사단 제17연대가 제2사단에 편입되었다.<sup>73)</sup> 제3사단·제5사단·제12사단은 처음에 편성된 연대를 그대로 보유했다.

사단의 예하연대가 변경된 시점은 개전을 불과 1~2개월 앞둔 시기였다. 따라서 이는 북한 지도부가 전쟁계획을 수립한 후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격부대를 재편한 것이다. 연대가 교체된 이후 각 사단 내부의 주공격·보조공격부대 편성을 보면 제14연대는 제1사단의 보조공격부대로 선정되었고, 제1연대는 제6사단의 주공격부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제1사단과 제6사단의 연대 교체는 제6사단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8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소련군의 군사교리에 따라 육성된 연대였다. 민족보위성은 제1연대를 제6사단에 편입시킴으로써 제6사단의 정규전 능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처럼 제6사단의 연대 개편은 창설과정에서 다른 사단에 비해 정규군화의 기간이 부족했던 제6사단의 전력과 현대적 정규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달리 제17연대와 제5연대는 새로 편입된 제2사단과 제4사단에서 보조공격부대로 선정되었다. 2개 연대는 모두 북한에서 창설되어 소련군의 군사교리에 따라 육성된 부대였다. 다만 제17연대는 1948년 10월에 창설된 반면에 제5연대는 1946년 8월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제5연대가 제17연대보다 정규군의 전략전술을 오랫동안 습득했다. 그러므로 제2사단과 제4사단의 연대 교체는 3년

73)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93~1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p. 730.

6개월 동안 소련식 정규군으로 육성된 제5연대를 제4사단에 편입시킴으로써 제1·2·3사단에 비해 창설과정이 2년 2개월 늦은 제4사단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1946년부터 창설되어 오랫동안 정규군으로 육성된 연대를 정규군화 기간과 창설기간이 짧은 사단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사단의 전력을 보강하고 각 사단의 전체적인 전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은 보병사단의 재편은 기본적으로 전쟁계획에 상정된 주공격부대와 보조공격부대의 역할에 따른 것이다. 개전 당시 제1단계 작전계획을 보병사단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민족보위성은 서울 점령과 한강 이북지역에서 국군 주력 섬멸을 위해 3개 보병사단(제1·3·4사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포위소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을 2중3중으로 포위해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주력을 소멸하려고 계획했다.

이를 위해 민족보위성은 먼저 서울을 직접 공격하는 주공격집단인 제1·3·4사단을 통해 한강 이북에서 1차 포위를 계획했다. 다음으로 개성-김포로 진출하는 제6사단과 춘천-가평-성남으로 진출하는 제2사단을 통해 한강 이남에서 다시 한 번 국군 주력을 포위·섬멸하려고 구상했다. 그리고 보조공격집단인 제2집단군을 통해 중동부지역과 동해안축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해 서울 동측방과 수원방향으로 우회 공격하고, 일부는 동해안으로 진출시켜 국군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려고 계획했다.<sup>74)</sup> 북한 지도부의 제1단계 작전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단은 서울을 직접 공격하는 제1·3·4사단과 한강 이남에서 국군 주력을 포위하는 제2·6사단이었다.

민족보위성이 이상의 보병사단을 주공격부대와 보조공격부대로 선정한 이유는 각 사단의 교육훈련수준과 1950년 4월까지 진행된 보병사단의 전력 평가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각 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선정된 부대는 제1·3·4·12사단이며 보조공격부대로 선정된 부대는 제2·6사단이다. 제5사단은 제2집단군에서 제12사단의 후공격부대로 선정되었다.

주공격부대로 선정된 제1·3사단은 1946년 8월부터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교육받으면서 3년 10개월 동안 정규군체제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제1·3사단을 현대적 공격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

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리주바예프 보고서』1권, pp. 133~1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2권, pp. 12~14.

대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공격부대로 선정된 제4사단은 제4여단시기에 보유했던 3개 대대를 기간으로 1949년 말에 제16·17연대를 편성했고, 1950년 4월에 중국에서 온 조선인독립단을 배속해 제18연대를 편성했다. 제18연대의 전신인 조선인독립단은 1950년 2월부터 장교덕이 인솔해온 2,800명을 주력으로 편성되었는데 장교덕은 제18연대장으로 임명되었다.<sup>75)</sup> 따라서 제18연대는 조선인부대 중에서 제12사단과 함께 전력이 가장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부대장악력과 부대원의 단결력도 높았다. 민족보위성은 이처럼 제18연대의 전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제4보병사단에 편입시켰다.

특히 제4사단이 다른 사단보다 늦게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제1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선정한 이유는 북조선로동당이 다른 사단보다 더 많은 당원들을 투입해서 특별히 편성한 “당원사단”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1950년 5월 12일에 제4사단을 방문해서 장병들에게 제4보병사단에 대한 노동당과 주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sup>76)</sup>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1946년 8월부터 소련군사고문에 의해 오랫동안 정규군으로 육성된 제1·3사단과 당원사단인 제4사단을 주공격부대로 배치함으로써 소련군의 현대적 군사교리에 따라 제1차 공격목표인 서울을 급속히 점령하려고 계획했다. 특히 전력이 가장 우수한 3개 사단을 서울 공격축선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제1단계 작전 목표가 서울을 조기에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sup>77)</sup> 제1단계 작전 목표의 달성여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였다.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체득하고 현대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제1·3·4사단을 서울 공격축선에 배치함으로써 작전기간이 불과 5일로 설정된 제1단계 작전에서 신속히 방어선을 돌파해 서울을 조기에 점령하고 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한 다음에 수원-원주-삼척 방어선으로 진출하려고 계획했다.<sup>78)</sup>

75)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 153.

76) 당원사단인 제4사단의 당원수당원비율과 각 사단별 당원비율, 정치간부 구성, 당조직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당문서, 정치훈련지침, 정치부 자료, 부대문건 등은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사단에 비해 실제로 제4사단의 당원비율이 어떠했는지, 당원사단의 편성이 실제 전투과정에서 높은 군사규율, 전투의지와 부대결속의 강화, 당의 군대통제 강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향후 자료발굴을 통해 해명해야할 연구과제이다. 김일성,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보병연대 지휘관 및 병사들과 한 담화”(1950.5.12). 『김일성전집』11권, p. 367.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라주바예프 보고서』1권, pp. 136~137.

제13사단과 함께 1946년 8월부터 정규군으로 성장한 제2사단은 제2집단군의 보조공격부대로 선정되었는데, 제2사단의 전투임무는 춘천-가평으로 진출해 한강 남쪽에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고 ‘인민군’ 주력의 좌측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비록 제2사단은 보조공격부대였지만 이 임무는 제1단계 작전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전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제13사단과 함께 1946년 8월부터 소련군사고문에 의해 정규군으로 육성된 제2사단을 제2집단군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제2사단은 작전계획과 달리 6월 25일에 춘천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총참모부는 6월 26일자로 제2사단장 리청송(李靑松)을 전격 해임하고 최현(崔賢)을 신임 사단장으로 급파했다. 이 같은 전투결과는 국군 제6사단의 효율적인 방어 때문이지만 전쟁 이전에 제2사단의 전력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sup>79)</sup>

가장 특징적인 점은 중국에서 온 부대 중에 제12사단은 주공격부대로 결정된 반면에 제6사단은 보조공격부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제12사단은 제6사단과 달리 1950년 1월까지 국민당 정규군과 전투를 전개했으므로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전력도 우수한 부대였기 때문에 중동부전선을 공격하는 주공격부대로 배치되었다. 반면에 제6사단은 중국에서 동북전쟁에만 참전했고 1948년 11월부터 전투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12사단에 비해 전력이 떨어졌다. 또한 제6사단은 1949년 12월 보병사단 공격연습의 결과 작전지도와 병종간 합동작전에서 결함이 발견된 부대였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서 온 2개 사단의 실전경험과 작전수행능력을 비교해서 제12사단을 제2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배치하고 제6사단을 제1집단군의 보조공격부대로 배치했다. 또한 북한 지도부가 제6사단에 김포방면으로 우회해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은 제6사단이 중국군에서 우회기동작전을 풍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제5사단의 전신인 제164사단은 제6사단의 전신인 제166사단에 비해 동북전쟁시기에 전투기간이 짧고 실전경험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은 조선인사단을 북한으로 양도할 때 제164사단을 전투경험이 부족한 부대로 평가했다.

78) 소련 국방성 편, 이은연 옮김,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I,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23, pp. 47~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라주바예프 보고서』 1권, pp. 136~137.

79) 안동춘, 『총서(불멸의 력사): 50년 여름』,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pp. 167~171, 394.

또한 제164사단은 3개 연대의 모체가 다르고 1948년 3월에 처음으로 3개 연대가 같은 사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부대의 통일성과 전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제164사단은 제166사단과 동일하게 1948년 11월부터 전투경험이 없었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제5사단을 중국에서 온 부대 중에 유일하게 제2제대(梯隊)로 선정해서 주력사단의 후방에 배치했다.

## V. 맺음말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은 사단별로 창설과정과 군사적 특징이 달랐다. 제1·2·3사단은 모두 1946년 8월에 설립된 보안간부훈련소를 모체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제1·2사단은 소련군의 경보병사단을 모델로 편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제1·2·3·4사단의 창설과정과 전력의 상관관계였다. 제1·2·3사단은 모두 1946년 8월부터 3년 10개월 동안 소련군사고문단의 지도 아래 소련군 교재·교범·무기로 훈련받으면서 정규군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제3·4사단은 소련군 근위보병사단을 모델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이 우수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은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민군’ 사단 중에 우수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던 제5·6·12사단은 사실 실전 경험이 적었으며 정규군의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창설된 보병사단에 비해 전력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서 온 조선인사단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단이 소련군의 군사교리와 정규군의 전략·전술을 배우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정규군을 상대하는 현대전의 전투방법과 전투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각 사단의 창설과정과 전력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주공격·보조 공격부대를 선정했다. 제1·2·3사단은 1946년 8월부터 소련군의 군사교리에 따라 정규군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적 공격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대였다. 그리고 제4사단은 노동당원을 다수 투입해 특별히 편성한 당원사단이었다. 그러므로 북한 지도부는 제1·3·4사단을 제1단계 작전목표인 서울을 점령하는 제1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배치했고, 제2사단을 제1단계 작전 시 한강 남쪽에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제2집단군의 보조공격부대로 배치했다.

반면에 제6사단은 1948년 11월부터 전투경험이 없었으며 1948년 12월 검열 당시 작전지도와 합동작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1집단군의 보조 공격부대로 배치되었다. 제5사단은 제6사단보다도 전투경험이 부족했고 부대의 통일성도 떨어졌기 때문에 입북 부대 중에 유일하게 제2제대로 선정되었다. 이와 달리 제12사단은 1950년 1월까지 미군 무기로 무장한 국민당 정규군과 전투함으로써 실전경험이 가장 풍부한 부대였기 때문에 제2집단군의 주공격부대로 배치되었다.

## 참고문헌

- 『중국동북해방전쟁참가자들의 회상기』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156사실전록 편집위원회, 『156사 실전록』, 연변: 연변교육출판사, 2002.
- HQ, FECOM,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Tokyo: HQ, FECOM, 1952.7.31.
- 곽은경,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길재준·리상전,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1945.8~1950.6)』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김일성전집』5·9·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4·1995.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박순희, 『민족보위성 리력서』, 평양: 제17포병연대, 1950.1.18.
- 쉬띠꼬프, 『쉬띠꼬프 비망록』, 서울: 중앙일보사 내부번역본, 1995.
-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권.
- 안동춘, 『총서《불멸의 력사》: 50년 여름』,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염인호, “해방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부대의 활동과 북한입국.”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2권.
-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서울: 역사비평사, 2010.
- 이성춘, “1950년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제11권 6호, 2020.
- 이성춘, “조선인민군 군사칭호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제40권 4호, 2024.
- 이재훈, “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의 ‘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제45권 3호, 2005.
-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장성진, “6·25전쟁 이전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성격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제36

권 1호, 2013.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정현수 외, 『중국 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편, 『돌아보는 력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2.

조학범, 『조선인민군대 이력서』, 평양: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1948.9.25.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祕史』中卷, 서울: 兵學社, 1977.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1권, 서울: 고려원, 1990.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1992.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에디터, 2003.

포병참모부, 『보위성 접수문건철』, 평양: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 1950.6.13.

Abstract

**The Cre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Army Infantry Division and  
Deployment along the 38th Parallel: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Soviet and Chinese Armies**

Kim, Seon ho(MND,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The 1st, 2nd, 3rd and 4th Divis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were founded in North Korea, and the 5th, 6th and 12th Divisions returned to China from 1949 to 1950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North Korean Army. The 6th Division was selected as an auxiliary attack unit for the 1st Corps because of lack of combat experience in China. The 5th Division was selected as the rear unit because it had less combat experience than the 6th Division. On the other hand, the 12th Division was the most attacked unit in the Chinese Civil War, so it was decided to be the main attack unit of the eastern front.

The 1st Division, 2nd Division, and 3rd Division were the most suitable for the modern offensive as they were trained as regular army for 3 years and 11 months. The 3rd and 4th Divisions were modeled after the Soviet light infantry division, so they were superior to other divisions. Therefore, 1st Division, 3rd Division, and 4th Division were selected as the main attack units of the 1st Corps.

Keywords :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Chinese Civil War, Soviet Military Doctrin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투고일: 2026년 04월 02일, 심사일: 2026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17일